

8월 사목 서간

중미 국가 방문 중인 단장주교의 사목 서간이다.

2014-8-18

나의 영적 자녀들이여, 예수님께서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푸스데이 의사도직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지역의 여섯 나라를 사목 방문 중입니다. “하느님의 사업을 생각하면 ‘어안이벙벙’해집니다.”라

고하신우리의아버지의말씀이십분이
해가갑니다.

그리하여나의마음에가장먼저떠오르는것은이사랑스런나라들에서거둔사도직의결실에대하여하느님께깊은감사를드리는것입니다. 과테말라에서파나마에이르기까지나와함께해주고있는여러분모두와같이내가본것은모든인종과여러언어의사람들에게서영적생활이꽃피는놀라운광경이었습니다. 이지역에서는스페인어외에도다양한토속어들이사용되고있었습니다. 이장관을바라보며성호세마리아께서자주하시던말씀을다시떠올립니다.
“세상에는오직하나의인종만이있습니다. 하느님의자녀라는인종. 우리는모두같은언어를써야합니다. . . 예수님께서당신의아버지께쓰셨던언어. 여러분이지금기도중에쓰고있는, 머리와마음의언어, 즉관상의언어말입니다.”[1] 우리의아버지께서또다른강론에서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모든이에게평화와기쁜소식, 생명을주

기위하여오셨습니다. 부자만을위해
서도아니고, 빈자만을위해서도아닙
니다. 지혜로운사람들만을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한사람들만을위해서도
아닙니다. 모든이를위하여, 우리의형
제들을위하여—우리모두는같은아버
지하느님의자녀로서형제이기때문에
— 오셨습니다."[2]

나는이아름다운곳에서한주더있을예
정입니다. 계속해서기도와희생으로
나와함께해주기를바라며, 여러분의
직업적일과요즈음보내고있을휴가의
시간을봉헌하기바랍니다. 그렇게영
적결실은풍성해집니다. 항상교황님
을위해기도하십시오. 이달에는특히
교황님의한국방문을위해일치하십시오.
많은가톨릭신자들과다른많은선
의를가진이들이그곳에서교황님을기
다리고있습니다.

매년이시기에내가여러분에게상기시
키는바와같이, 8월은마리아축일로풍
성합니다. 2일천사의모후기념일과

22일동정마리아모후기념일사이에, 5일성모마리아대성전봉헌 (눈의성모님) 기념일과무엇보다도성모님의영육이몽소승천하신대축일이있습니다. 그날성호세마리아와알바로주교, 하느님의현존안에기뻐하는하느님사업의전신자와일치하여우리는지극히티없으신성모성심께오푸스데이를새로이봉헌합니다. 이는우리의창설자께서 1951년 8월 15일로레토에서처음으로시작하신전통입니다.

그날전례에서는묵시록의독서를통해 태양과달을발아래입고열두별로된왕관을쓴여인이그녀의태에서막나오고 있는아들을집어삼키려는지옥의용과 대결하고있는모습을보여줍니다.[3] 이형상은무엇보다교회를나타냅니다. “한편으로는영광스럽고승리에차있으며다른한편으로는여전히고통안에있는교회. 교회는그러합니다.” 프란치스코교황님은강론에서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교회가이미하느님의 영광과어떤방식으로연결되어있다면,

역사에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그 영속적적 악마의 충돌이 불러오는 고난과 도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4] 이 장면에서 매우 분명한 첫 가르침을 끌어 내 봅시다. 우리가 성화되는 길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충실하고 자하는 휴전 없는 투쟁의 필요성. 그의지상순례의 끝무렵에 성호세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응답을 요약하듯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우리의 운명입니다. 사랑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하는 것. *Deo gratias!*"^[5] 이나날의 투쟁이 없다면 (거기에는 승리도 패배도 있습니다. 패배하면 우리는 고해 성사를 통해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또는 지더라도 바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수많은 전구자, 그 중 누구보다 성모님의 도움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Auxilium Christianorum! 신자들의 도움, 로레토의 성모 찬송은 믿음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이

화살기도를 되뇌어 봤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자녀다운 세심함으로 한다면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의 전구가 가진 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당신을 승리로 이끄실 것 입니다." [6]

성모님 또한 지상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나 자렛에서 fiat! 라 응답하신 것을 가슴에 새기시며 매 순간 하느님께 충실하셨습니다. 바로 주교는 썼습니다. "빛에서 또 다른 빛으로, 은총에서 또 다른 더 큰 은총으로,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마리아는 하느님과의 일치안에서 부단히나 아갔습니다. 교회가 이 달의 15일에 경축하는 그 특유하고 놀라운 사건이 있기까지 말입니다." [7]

묵시록의 여인은 또한 성모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교회처럼 "마리아도 어떻든" 이 이중적 조건을 공유합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미 천국의 영광에 [8]

우리의 창설자의 모범을 따라 성모님에 대한 그의 큰 사랑에서 나온 알바로 주교의 또 다른 권고를 들어봅시다. “자녀들이여, 하느님과 우리 영혼의 적에게 지 않으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은총의 도움과 하느님의 어머니의 가장 강력한 전구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가서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도, 고행,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를 자주 받는 것. 예수님께 충실해지고 싶다고 얘기 합시다. 그리고 복되신 동정녀께 이렇 게 말합시다. ‘저의 어머니, 저는 당신의 아드님께 충실하고 싶사오니, 저를 위한 당신의 전구에 의탁하겠나이다.’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9]

성모승천대축일은 성모님께 멋진 선물을 드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싸우며, 보다 확고하고 엄격한 회심으로 구체화된,

우리각자가받은그리스도인의소명에
충실할것을새롭게결심하는것. 따라
서양심성찰에, 특하고해성사전에, 큰
주의를기울입시다. 우리는성모님께
"우리의삶이하느님의것, 하느님을위
한것이되도록, 그리하여우리의삶이
하느님께언제나 fiat!라고응답하는그
리스도인의특유성을가질수있도
록"[10] 도움을청해야합니다.

나는알바로주교가크고작은모임에서
사람들에게하느님의도우심으로나날
의싸움에서승리하도록어떻게격려했
는지직접보았습니다. 보통이러한노
력은작은것들에있지만 (이웃에게작
은사랑을실천하는것, 시간을잘쓰는
것, 일을잘마무리하는것. . .) 이러한
전투에더큰노력을기울여서우리에게
영원한기쁨으로가는문을열어줄 "최
후의전투"에서승리할훈련이되게해야
합니다.

알바로주교는성호세마리아께서항상
강조하시고특히삶의마지막무렵에역

설하셨던가르침을명심하였습니다.
우리의창설자는말씀하셨습니다. "전
쟁에서는한번이나두번, 혹은세번전
투에서패배할수있습니다... 최종결과
를결정지을마지막전투에서이기기만
한다면이것은중요하지않습니다. 또
한전쟁이며전투라고할수있는내적생
활에서는어떤전투에서도지지않는것
이좋습니다. 우리가언제죽을지모르
기때문입니다. 어린자녀들, 청소년들,
아주늠름한사람들도모두이세상을떠
납니다. 때로는늙은이들이계속해서
살기도합니다. 아무도언제그들삶의
계정을하느님께보여드리게될지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전투에서지는사람은
전쟁에서지는것이기때문에, 우리주
하느님과우리각자만이아는이싸움에
당해서는 . . . 이전투에관해서는잊지
말아야합니다. 이것이마지막일수도
있다는것, 하나의전투에서패배하여
나의전생애를쓸모없는것으로만드는

우를 범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자녀들이여,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길입니다."^[11]

알바로주교는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Si Deus pro nobis, quis contra nos?*^[12]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겠습니까? 알바로주교는 성 바오로의 말씀을 빌어 자주 물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다 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종종 인용하였습니다.^[13] 알바로주교는 둘 사이의 무기의 불균형을 지적하였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방패, 갑옷으로 무장한 반면에 윗은 목동이 쓰는 돌 팔매와 강바닥에서

주워모은돌멩이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온전히 의탁함으로 써다윗은 그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모승천대축일의 복음은 마니피캇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줍니다. “희망은 매일의 삶에서 삶과 죽음, 선과 악의 충돌을 경험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의 덕입니다. . . 성모의 노래, 마니피캇은 희망의 노래이며 역사를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의 노래입니다. . . ”

“이 노래는 특히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 수난을 겪는 곳에서 힘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희망을 앗아 가지 말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이 힘은 우리 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한 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느님

의은총이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그러한 공동체가 까이에, 우리 형제자매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며 함께 고통 받고 함께 희망의 마니피캇을 노래합니다." [14]

이 말씀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신앙 때문에 고통 받고 박해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맙시다! 우리 의 기도와 희생으로, 물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위로 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통공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되게 합니다.

이 달 22일에 경축 할 다른 마리아 축일을 간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모후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바로 주교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 관식을 상상하면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되신 삼위일체께서 천사들과 성인들의 모후를, 보다 더 완전하게, 사로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그러해서 빛의 폭발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 위로 들어 올려져 그들이 더욱 더 성모님을 기리고, 공경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5]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충실하다면 우리는 이 행복한 목표에도 달할 것입니다. 오류와 실수(내가 이미 말했듯이)가 있더라도 확고한 결심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고 해성사를 보고 성체 성사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천상의 어머니께의 탁한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지상 생애 또한 천국의 영광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의 삶에서 거룩함을 위해 투쟁하는 이 길을 따라 가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의 복되신 어머니께서나 자렛에서 보낸 시기를 통해 열어 주신 길,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거룩한 창설자께서 거리낌 없이 본받아 따라 가신 그 길 말입니다." [16]

31일에 토례치우다드에서 나는 독신회원(Associate) 형제 두 명에게 사제 서품을 줄 것입니다. 이 또한 거룩한 어머니 교회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업의 전적인 일치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알바로 주교의 시복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의향과 자유에 따라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제안을 실천해보도록 권장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은 총의 시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 이유로 마드리드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질병, 노령, 일 때문에 짬을 내지 못하거나, 여행 비용을 댈 수 없다든지...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시복식과 후에 로마에서 있을 행사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고통의 봉헌, 시복식에 참석할 하나님의 사업의 회원, 협력자, 친구들과의 영적 일치가 참으로 실질적인 기여가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영혼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것
입니다.

나의 모든 사랑을 담아, 여러분을 축복
합니다.

2014년 8월 1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서

여러분의 아버지

+ 하비에르

[1] 성 호세 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
나가신다』, 13항.

[2] 위의 책, 106항.

[3] 뮡시 12:1-6 참조.

[4] 교황 프란치스코, 강론, 2013. 8.
15.

[5] 성 호세마리아, 자필 메모, 1971. 12. 31.

[6] 성 호세마리아, 『밭고랑』, 180항.

[7] 알바로 주교, 사목서간, 1993. 8. 1.

[8] 교황 프란치스코, 강론, 2013. 8. 15.

[9] 알바로 주교, 성모승천 대축일 강론, 1989. 8. 15.

[10] 알바로 주교, 강론, 1976. 9. 8.

[11] 성 호세마리아, 가족모임 기록, 1972. 4. 8.

[12] 로마 8:31.

[13] 1사무 17:39-51 참조.

[14] 교황 프란치스코, 강론, 2013. 8. 15.

[15] 알바로 주교, 강론, 1976. 9. 8.

[16] 알바로 주교, 사목서간, 1993. 8.
1.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
8weol-samog-seogan/](https://opusdei.org/ko-kr/article/8weol-samog-seogan/) (2026-1-31)